

탄녹위,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

- 세미나, 포럼 참석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 등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공유
- 영국, 캐나다, 호주, 남아공 등 기후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

-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위원장: 김민석 국무총리, 이하 ‘탄녹위’) 김종률 사무차장 등 출장단은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0)에 참석한다.
- 김 사무차장은 한국 홍보관에서 개최되는 녹색금융, 국제감축, 산림 등 세미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.
- 또한, 영국, 캐나다, 호주, 남아공 등 주요국 기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, 기후위기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 아울러, 국제 기후위원회네트워크(ICCN)가 주최하는 농업 분야 감축, 기후변화 적응 등 포럼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.
- 김 사무차장은 “파리협정 채택 10주년 되는 해에 개최되는 COP30에서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 에너지 정책을 적극 공유함으로써, 탄소중립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<총괄>	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소통협력관	책임자	과 장	강유식	(044-200-1969)
		담당자	사무관	심명섭	(044-200-1970)